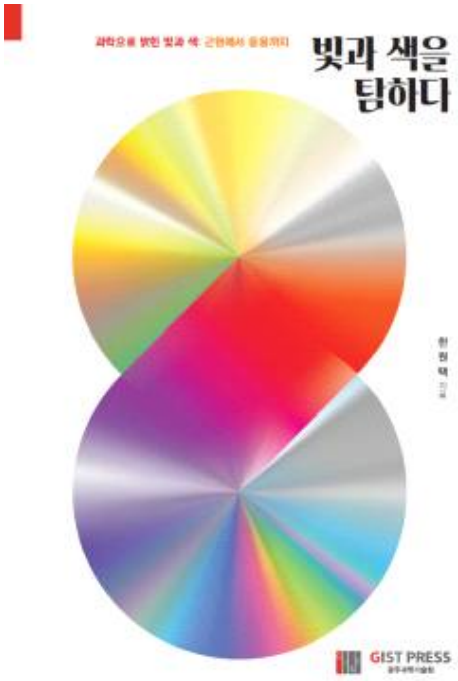
지스트 한원택 명예교수,
과학교양서 '빛과 색을 탐하다' 출간

-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리학 이야기



▲ GIST PRESS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명예교수이자 고등광기술연구소(APRI)의 연구위원인 한원택 저자의 과학교양서 '빛과 색을 탐하다'를 출간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출판사인 GIST PRESS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명예교수이자 고등광기술연구소(APRI)의 연구위원인 한원택 저자의 과학교양서 '빛과 색을 탐하다(과학으로 밝힌 빛과 색: 근원에서 응용까지)'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빛이 있기에 지구에서 마음껏 숨 쉬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색들을 볼 수 있다. 태양 같은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근원과 빛이 처음 나온 시점이 궁금하다.

이 책은 오래전 철학자나 과학자도 이와 같은 빛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론과 실험으로 빛과 색의 비밀을 조금씩 밝혀냈음을 소개한다. 또한 수십 세기에 걸쳐 헌신해온 과학자들의 치열했던 탐구 정신과 그 결과물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빛과 색 그리고 빛과 색을 이용한 유익한 기술들을 탐구하고자 했다.

특히 수많은 과학자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탄생한 과학적인 이론과 실험의 결과들이 응용기술로 이어지는 지적인 궤적을 추적하는 흥미를 제공한다.

저자인 한원택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햇빛 속에 담긴 무궁한 자연의 섭리를 알아가고, 이미 삶 속에서 함께 누리는 빛의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가오는 빛과 색, 이 귀한 선물을 알아가는 지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 교수는 지난 2019년에 과학교양서 '유리시대: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유리 이야기'를 출간해 다양하고 멋진 유리의 숨겨진 비밀과 미래 소재로서의 유리에 대한 신기술을 소개하며, 과학기술을 일반인도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